



미국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하는
미국 대선과 저항

7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파병설

2, 3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 학살과
이집트의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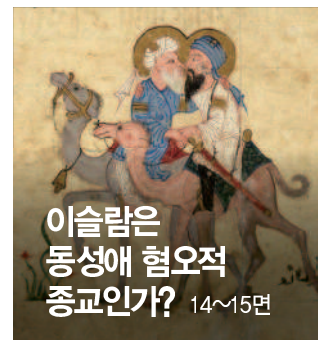
4면

윤석열
퇴진 운동

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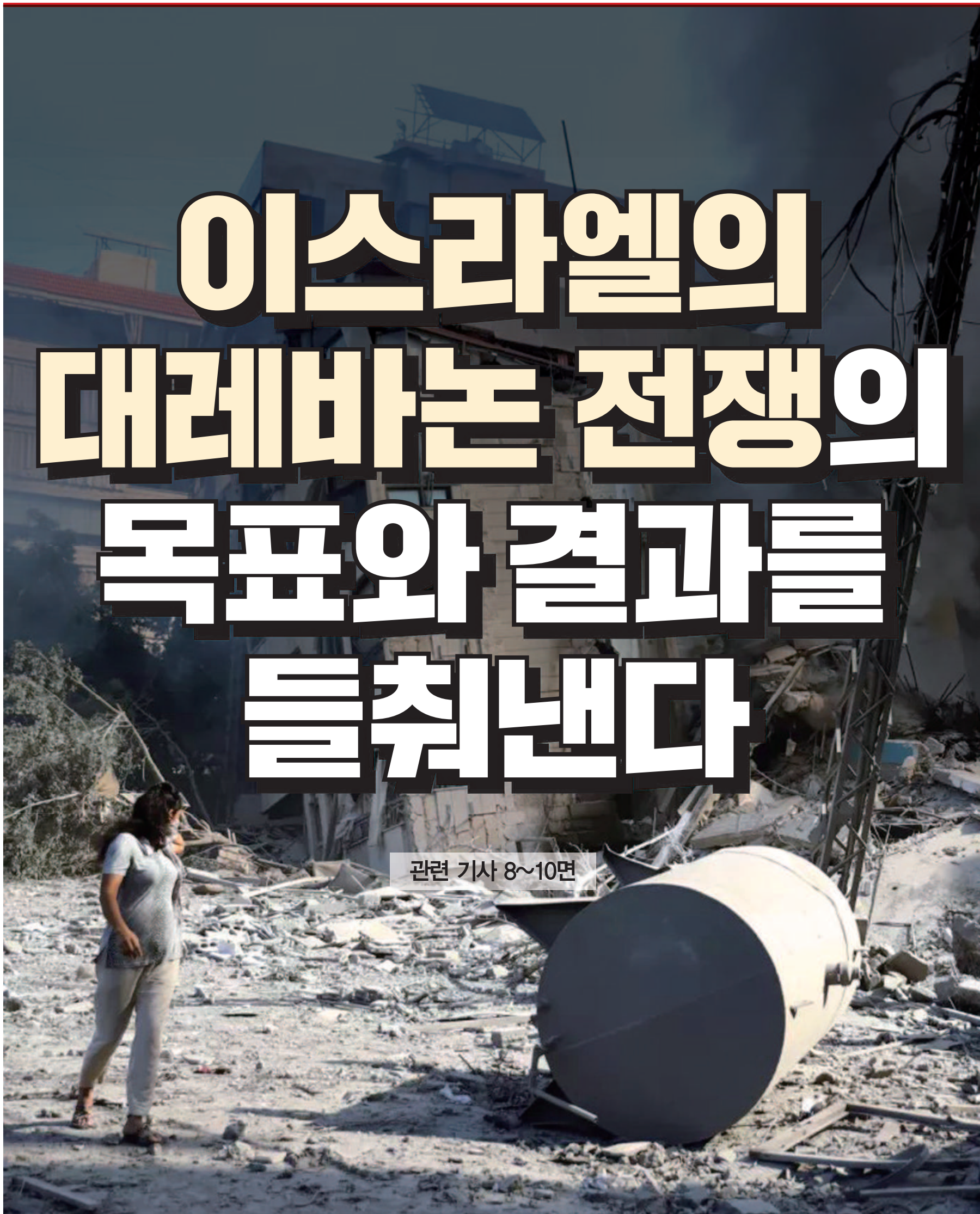
미국 보잉 파업
승리

16면



이스라엘의 대레바논 전쟁의 목표와 결과를 들춰낸다

관련 기사 8~10면



북한군의 쿠르스크 배치설, 전쟁 프로파간다, 확전 위험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 중단하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최신 사건은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파병됐다는 주장이다.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고 러시아 위조 신분증을 발급받은 “1만 2000명의 북한군”이 정말 쿠르스크 전선으로 갔을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전투병 파병을 확인해 주지는 않았다.)

이 ‘정보’의 유통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앞장서서 주장과 평가를 내민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 내에서 북한군 동선을 확인한다. 러시아는 확인도 부인도 않는다.

그러나 파병 ‘증거’라고 내놓은 사진과 영상은 촬영 주체, 일시, 장소 등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도 미국 등 서방 지도자들은 북한군의 쿠르스크 배치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는 10월 28일 북한군 쿠르스크 배치 소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부대들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10월 28일 윤석열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군이… 파병[되고]… 북한이 러시아에 점점 더 많은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심각한 확대를 의미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마침내 미국 국무부 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10월 31일 “북한군 8000명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파병됐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국 무기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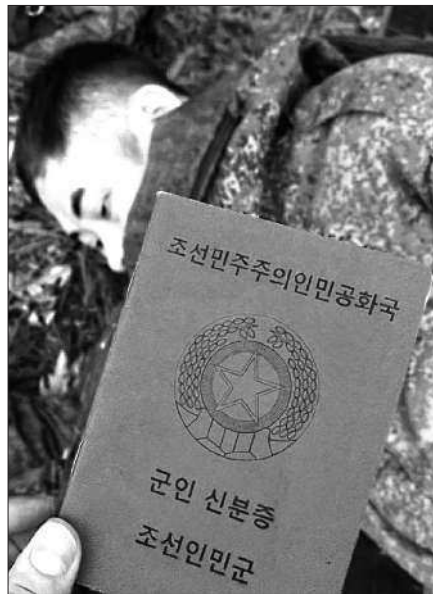
전쟁에서 프로파간다, 진실 은폐, 조직적인 거짓말은 늘 중요한 구실을 했고 지금도 그렇다.

2003년 2월 5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라크가 생물·화학·핵무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추정으로도 이미 100~500톤의 화학무기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

한 달 반 뒤인 3월 19일 미국은 이



2003년 유엔 안보리에서 거짓말하는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좌)과 젤렌스키가 제시한 조작한 증거(우)



라크를 침공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이라크 민간인 20만 명이 숨졌다(미군은 4431명 전사). 그러나 미국은 침공의 명분으로 댄 대량 살상 무기(WMD) 프로그램의 증거를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파월은 2년 뒤 자신의 유엔 안보리 연설이 중앙정보국(CIA)의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증거라는 것들은 모두 이라크인 망명자들이 만들어 내고 재활용한 추정과 가정들이었다.

북한군 파병설을 대북 압박에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보’의 출처는 국정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군 파병설을 띄워 서방 “국제 사회”가 북한을 더욱 세계 압박하기를 원한다.

최근 들어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6월 북·러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에는 상호 방위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푸틴은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 심화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진작부터 우크라이나에 155밀리미터 포탄을 우회 지원해 왔다. 현재 육군 탄약 정책담당관이 나토에 출장이 있다.

미국은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발표에 바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10월 31일 한미 국방·외교 장관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편,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해 당장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우익적인 일부 탈북민 단체들은(정부의 묵인 속에서) 대북 전단을 북한에 살포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오몰 풍선을 남한으로 보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모든 확성기를 가동해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와 소리’를 재송출하고 있다. 그러자 북한 정부는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범을 이유로(사용되지 않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상징적으로 폭파했다.

진정한 우크라이나 전황

젤렌스키가 제시한 “증거”라는 것은 조작하기 이를 데 없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살펴보면,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선 파병설은 전쟁 프로파간다일 공산이 클 듯하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김정은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다. 푸틴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따름이다.

젤렌스키는 푸틴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허황한 목표를 가지고 8월에 우크라이나군을 쿠르스크로 진격케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는 쿠르스크 면적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8월에 약 13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지만, 지금은 약 600제곱킬로미터로 축소됐다.

러시아군 약 5만 명이 쿠르스크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 ‘전선’은 두

렷하지 않다. 러시아의 주된 전투 양상은 전투기에 의한 폭격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점령 지역을 수호이-34 전투기가 투하하는 활공 폭탄으로 공습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군 1만 2000명”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를 위해 제공할 것은 별로 없다.

물론 병력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 큰 문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러시아는 군대의 낮은 사기에도 불구하고(러시아 청년들은 불의한 전쟁을 위해 해외에 나가서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매달 약 3만 명을 모병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나토는 러시아군이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보다 병력 규모가 15퍼센트 더 커진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러시아군이 하루에 1200명, 한 달에 3만 6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다고 추산했다(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11월 1일 자).

따라서 북한군 1만 2000명을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한다 해도 약 열흘 치 사상자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물론 러시아가 북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인적 자원을 사실상 거의 소진했다. 전쟁 발발 초기와 달리 자원 입대자는 감소했고, 병역 기피 시도가 늘고 있다.

그래서 젤렌스키 정부는 지난 4월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재소자도 징집하기 시작했다.

지금 젤렌스키의 유일한 희망은 “전쟁이 국제화”되는 것이다. 미국 등 서방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을 넘어 전쟁이 확대되는 것 말이다. 젤렌스키가 “1만 2000명의 북한군” 정보를 계속 유포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를 거둬 위협하지만 그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 패배를 막기 위해 돈과 무기를 끊임없이 보낼 뿐이다. 결국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승리보다 러시아의 소모에 베풀고 있는 것이다.

김인식

윤석열과 북한을 공평무사하게 비판할 수 없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설 띄우기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의 북한 전투병 파병설을 근거로 미국 등 나토 측의 기정사실화를 얻어 내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 검토, ‘군 참관단’ 파견을 추진하며 서방 제국주의를 더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런 친서방 대외 정책에 비판적인 좌파에 대한 탄압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파와 정권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 정권의 위기를 넘기는 데에도 이용하려는 듯하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진보당,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도를 중단하라는 옳은 입장을 발표했다.(민주노총이나 노동당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 파병을 핑계로 미국과 나토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러시아와의 외교적 노력에 강조점을 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노력을 피하지 않고 살상 무기 지원을 입에 올리는 것은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옮겨오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참여연대나 정의당은 러시아 규탄에 집중했었다. 비록 나토의 확장도 문제였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누가 먼저 총을 쏘느냐에 초점을 맞추며 러시아 규탄에 주력했던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2022년 초) 문재인 정부가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하고 그에 협력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전쟁의 진정한 성격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그들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태도를 정했다.

그런데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라고만 규정하고, 나토가 중요한 참전 세력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단체도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진보연대가 이런 입장이다. 사회진보연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지지해 왔다.

이번에도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은 러시아의 침략전쟁 동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해, 서방 지원에 나서려는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펀드는 입장을 내놨다.

이 성명에서도 사회진보연대는 북·러와 이를 지원하는 중국만을 침략 전쟁을 감행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볼 뿐, 서방 제국주의의 위협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지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계속 죽어 나가더라도 이 기회를 이용해 러시아의 힘을 소모시키겠다는 것인데도 말이다.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부는 러시아와의 굴욕적인 협상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무기 지원과 나토의 직접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전쟁의 장기화와 확전 추세에 일조해 전술 핵무기 사용 대두 같은 심각한 사태를 촉발할 수 있는 일이다.

침략에 반대한다며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을 지지하는 것은 전쟁 위험을 키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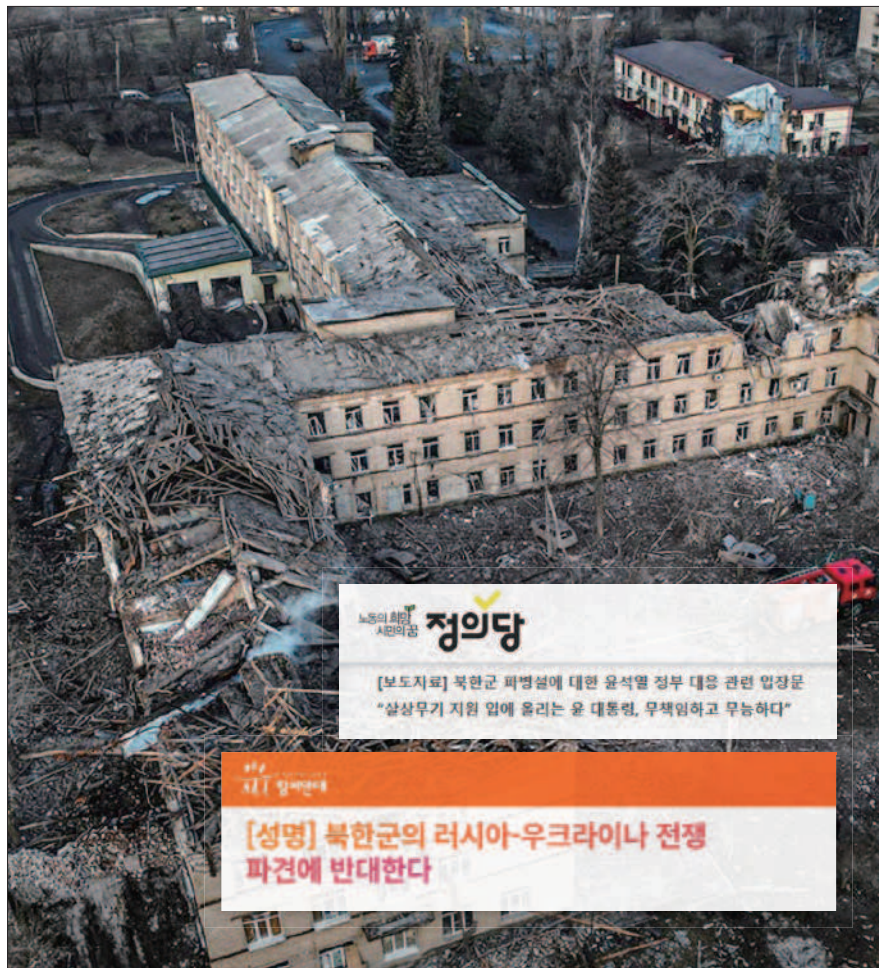
중도 양비론

의식의 변화는 확실히 불균등하다. 참여연대나 정의당은 비록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지만, 이에 못지않게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도 반대한다.

정의당은 앞서 언급한 성명에서 이렇게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의 파병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참여연대는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견에 반대한다’는 별도의 성명을 내 이렇게 말했다. “북한군의 참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이 전쟁을 더욱 국제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정의당이나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한미일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북·러가 밀착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북한도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



한국에 사는 활동가들은 서방 제국주의와 한국 정부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는” 세력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북한과 윤석열 정부 모두를 공평하게 비판하는 중도 양비론을 취한다.

그러나 이런 중도 양비론은 윤석열 정부의 노선과 방침이 한반도 불안정과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흐리는 효과를 낸다.

이런 입장은 또한 서방 제국주의와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하기 어렵게 하고 혼란을 유발시킨다. 한국과 같은 친서방 국가하에서 사는 활동가들은 러시아(와 북한)에 반대하는 것보다 먼저 서방 제국주의와 윤석열 정부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하는데 말이다.

결국 정의당이나 참여연대의 제안은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과 군사력 위주의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해, 평화 중재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입장을 변경하리라 기대하지는 않을 테니 민주당과의 협력으로 평화를 중재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도 최근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시도를 ‘신북풍’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진보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관계를 넘어 미국과 유럽, 세계 국제 관계가 복잡

하게 얽힌 전쟁”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쟁 초기부터 대러 제재 참여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해 왔다.

또,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입증하기에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진보당은 ‘국익’을 운운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협력에 나설 공산이 크다.

그러나 역대 민주당 정부도 모두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한반도에서 위기를 키우는 주체였다. 한미동맹이 제국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 국가의 위상을 올려 주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중시해 왔다. 물론 친미·친서방 일변도로 너무 나아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우려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우크라이나 군수품 지원에 나서며,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서 제국주의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데 사실상 일조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그 정부가 러시아를 설득하고 나토를 자제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셈이다.

이집트의 투쟁이 팔레스타인 해방의 열쇠다

미국은 이번 주 카타르에서 시작된 “평화 회담”이 가자지구에서 “종전을 도모할 계기”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서방은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쏟아붓듯 지원하고 있다.

서방의 중동 경비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경비전은 주인이 잡고 있는 목줄을 팽팽히 당기며 더 광범한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카타르 회담은 사기극이다. 이 회담에는 미 중앙정보국 CIA 공작원과, 지난달 레바논에서 벌어진 [통신기기 폭발] 테러 만행에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참석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의 주요 저항 단체인 하마스는 이 회담에 초청되지 않았다. 이 회담은 중동을 지배할 최선의 방법을 둘러싼 서방 제국주의 내 긴장을 보여 준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막대한 인종 학살이 아랍의 친미 정권들에 대한 저항을 낳을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긴장에 대응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전쟁을 확대해 서방의 지원을 굳히는 길을 택했다. 결정적 순간에는 미국이 자신의 테러 국가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임을 네



임금 삭감에 맞서 연좌 파업에 들어간 이집트알루미늄컴퍼니 노동자들

타냐후는 잘 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단속하지 못했고, 인종 학살과 전쟁이 벌어지는 내내 이스라엘을 용인해 왔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지난주에 가자지구 전쟁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입장을 냈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은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늘렸다.

엘시시

이집트 독재자 압델 파타 엘시시는 회담 시작 하루 전에 이틀간 휴전을 촉구했다.

서방이 비호하는 살인마 엘시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친구가 아니다. 그는

경제 위기로 만신창이가 된 자기 정권을 부지하러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11월 초에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해 약 8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급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구제금융을 대가로 엘시시는 3월에 “개혁 패키지”에 합의했고, 현재 연료비·식료품비·전기요금 보조금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집트 정부 당국은 자유시장 개혁 속도가 너무 빨라 대중의 분노에 불을 뭇길까 봐 우려하고 있다.

10월 21일 월요일에 국영기업 이집트알루미늄컴퍼니 노동자들이 연좌 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은 사측이 성과

급 삭감을 결정한 데에 분노해 벌어졌다. 사측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자 노동자들은 바로 다음 날 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은 당면한 경제적 요구를 두고 개별 기업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노동자 투쟁은 이집트 독재 정권과 이를 후원하는 미국 제국주의, 이스라엘에 맞서는 정치적 투쟁과 융합될 수 있다.

그런 일이 2011년 ‘아랍의 봄’ 때 벌어졌다. 당시 혁명으로 서방이 후원하는 독재자들이 타도되고 이스라엘이 고립됐다. 엘시시는 이집트 야당 무슬림형제단을 파괴하며 국가와 대중 사이의 “완충재”를 속 빈 강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잔혹한 엘시시 정권이 야만적인 탄압에 의존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취약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광범한 중동 지역에서 노동자·빈민에 기반한 저항의 힘이 다시 분출할 때 이스라엘과 그 제국주의 후원자들에 맞설 수 있다.

토마시 텅글라-에번스

출처 Tomás Tengely-Evans, ‘Resistance in Egypt is key to Palestinian freedom’ (2024. 10. 29) / 번역 김준호

이스라엘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활동 금지 “가자지구의 고통이 두고두고 서방의 악몽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테러 단체”라며 이 기구의 팔레스타인인 인명 구조 활동을 금지했다. 인종 학살 의도가 담긴 이 인종차별적 결정은 서방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소위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서방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극임을 폭로하고 있다.

유엔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소속 열강인 미국·영국·소련이 중심이 돼 종전 후 창설됐다. 세 제국주의 강대국 모두 자신에게 득이 되는 세계 질서를 원했다.

유엔 헌장은 유엔이 국제법을 이용해 “전쟁이라는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준엄하게 선포했다.

실상은 전혀 달랐다. 특히 미국은 자국에 유리하게 유엔의 구조를 철저히

조작했다.

1948년 2월 미국 국무부의 메모를 보면, 모든 국가가 원칙적으로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유엔의 보편주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는 내용이 있다. “진정으로 안정적인 세계 질서를 우리 생애 안에 구축하는 것은, 비교적 성숙하고 점잖은 선진국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앞서 미국은 제1차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유엔과 비슷한 기구인 국제연맹을 만든 바 있다.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 제국주의 열강이 서로 쟁투를 벌일 때 지켜야 할 “전쟁의 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규칙”은, 서방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벌이는 식민 점령 전쟁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식민지와 약소국을 상대로 제멋대로 할 수 있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 레온 트로츠키는

국제연맹이 “도둑놈 소굴”이며 미국 제국주의를 키워 줄 “속임수로 처음부터 끝까지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이라는 “도둑놈 소굴”에 무료 급식소를 만들었다.

유엔은 시온주의자들의 팔레스타인 식민 점령과, 인종차별적 폭력의 광풍인 1948년 ‘나크바’로 건국된 이스라엘 국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유엔은 인종청소로 추방당한 팔레스타인인 80만 명에 대한 대책으로 1949년에 UNRWA를 만들었다. 1967년과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던 곳에서 내쫓으면서 UNRWA의 활동 범위는 더 늘었다.

서방은 UNRWA 같은 기구가 제국주의의 피해자들에게 얼마간의 구호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를 자유주의라는 사탕발림으로 미화했다.

이스라엘이 인종 학살을 자행하는 지금, 그 사탕발림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바로 그 때문에 기성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번 주에 이렇게 경고한 것이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무기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그 무기 덕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을 끊임없이 폭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바이든이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중동이 겪는 파탄과 고통이 두고두고 서방의 악몽이 될 것이다.”

우리가 거리에서 저항하는 것은 그런 일을 현실로 만드는 데에 한몫할 수 있다.

출처 Socialist Worker, ‘Israel bans Unrwa aid agency, suffering in Gaza will haunt the West’ (2024. 10. 30) / 번역 김준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벌써 인기 폭락한 영국 노동당 정부

영국 노동당 정부의 두 핵심 인사인 총리 키어 스타머와 재무 장관 레이철 리브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리즈 트러스 [영국 역사상 최단임 총리, 2022년 9월 6일~10월 25일 재임] 뺀 칠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정부를 망가뜨리고 있으니 말이다.

그들은 연금수급자 수백만 명의 겨울 난방비 보조금을 끊고 알리 경한테서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 7월 총선에서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의 원망을 사는 데에 성공했다. 최근 BMG의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보수당에 1퍼센트포인트 뒤졌다. 보수당 당대표로 막 선출된 우익 데마고그 케미 베이드녹에게 기쁜 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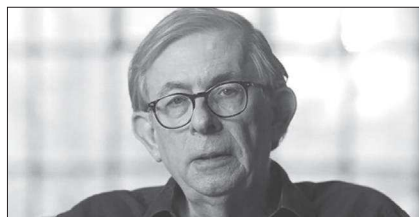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할 것처럼 홍보돼 온 리브스의 첫 예산안이 지난 수요일(10월 30일) 발표됐는데 이것도 낭패를 볼렸다. 리브스는 “경제적·정치적 안정성”을 이루겠다고 부단히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을 달래려는 그녀의 갖은 노력이 무색하게도, 예산안 발표 이후 투자자들은 영국 국채를 팔아치웠다. 이 때문에 재무부가 차입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리가 올라갔다.

지난주 목요일(10월 31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금리 인상으로 10년 만기 영국 국채 금리는 2022년 리즈 트러스가 ‘미니’ 예산안을 발표한 직후의 최고치인 4.63퍼센트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다. 당시 트러스의 예산안은 영국 국채 시장의 위기를 촉발하고 파운드화 가치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스타머는 서둘러서 같은 신문에 기고를 해야 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이번 주 예산안 발표 이후 정부가 증세와 지출 증대에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시장을 안심시키는 한편, 빼먹거리는 국가를 강도 높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예산안의 문제는 이도 저도 아니라는 것이다. 기반시설 투자를 늘리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리브스는 “재정 책임성”을 기하면서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그녀는 재정 준칙을 조정해서, 부와 이윤에 너무 큰 타격을 주어 시장이 겁먹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차입과 세입을 늘



영국 노동당 정부의 좀 덜 긴축적인 예산안에도 시장은 거부 반응을 보였다. 영국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영국 노동당 정부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 한다. 개혁을 약속하지만 금융시장도 흡족하게 하려 한다. 노동당 정부의 처참한 성적은 단지 무능 때문만이 아니라 이를 수 없는 목적들을 좇고 있기 때문이다

리려 했다.

그러나 그것 — 사회 보험 사용자 부담금 인상, 연금과 농지에 부과되는 상속세 인상 등 — 만으로도 사용자들, 농장주들, 보수당 언론이 “사회주의”니, “시계바늘을 1970년대로 돌리려 한다”느니 등의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아우성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동시에, 리브스는 향후 5년 동안 공공부문 지출을 700억 파운드 늘리려 하지만 이는 보건과 학교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의 폴 존슨이 지적하듯 대단히 “초기에 집중”돼 있다. 2025~2026년에는 일상적 지출이 3.1퍼센트 상승하지만 그 뒤에는 1.3퍼센트씩 오른다(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증가율).

숨겨 놓은 긴축

블룸버그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예산을 보호받지 못하는 부서(예컨대 교통부나 법무부)는 불가인상률을 감안하면 향후 의회에서 예산이 줄게 될 것이다. ... 이것은 긴축과 다르지 않다고 한 당직자는 사건을 전했다.” 같은 기사는 “노동당 내각 내의 초조함”에 관해 보도했다. “선거에서 ‘변화’를 내걸고 승리한 키어 스타머는 향후 10년 동안 나라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 노동당 정치인들은 정

권 연장이 가능할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시장의 반응은 리브스가 예산안의 세부 사항 속에 숨겨 놓은 긴축 기조에 반응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다음 선거 즈음에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결국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차입도 늘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실제로 향후 5년 동안의 정부 차입은 당초 예상보다 1420억 파운드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차입하려 든다면, 논리적으로 그 비용은 더 오를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스타머와 리브스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 하고 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동시에 금융시장도 흡족하게 하려 한다. 스타머와 리브스의 처참한 성적은 그들의 무능 때문만이 아니다. 동시에 이를 수 없는 목적들을 좇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들이 결국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면, 시장을 달래는 쪽을 택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미 정부는 더 많은 NHS “개혁”과 복지 삭감을 관철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보수당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번역 김종환

윤석열의 위기는 노동계급 운동을 전진시킬 기회

11월 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두 개의 반윤석열 집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명태균-윤석열 통화 녹취 폭로 직후 대중이 윤석열 퇴진(탄핵)에 대한 기대로 고무됐음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특검 촉구 집회에는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 연단에서는 애써 김건희 특검 촉구로 요구를 제한했지만, 참가자들의 윤석열 퇴진(탄핵) 염원은 집회장 어디에 서나 느낄 수 있었다.

민주당 집회가 끝난 후 시청-송례문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 집회는 최근 들어 가장 컸고(약 2만 명) 도심 행진의 기세도 뜨거웠다. 일반 참가자들뿐 아니라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과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도 윤석열 퇴진 사유로 거론됐다.

민주노총·진보당·전국민중행동 등이 주도해 만든 또 다른 퇴진 운동체 윤석열퇴진운동본부(준)은 11월 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대규모 윤석열 퇴진 총궐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진퇴양난 윤석열

윤석열은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하고는 별도로 메시지를 내어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대중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개악들이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어 서방 제국주의를 본적 지원하는 불량난을 벌이려 한다. 동시에, 호전적인 친서방 대외·안보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반미자주계 좌파를 탄압하고 있다.

지지율 추락 위기 속에서 윤석열이 버틸 명분은 우파와 기업주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데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이 너무 낮으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이 연일 사설과 칼럼으로 걱정하는 것이 이 점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윤석열의 진퇴양난 상황을 보여 준다.

물론 우파나 기업주들이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다. 여권도 내분 속 단합을 유지하고 있



2016년 말처럼 노동계급 대중이 주도력과 견인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 한동훈이 4일 대통령 사과와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그의 강조점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비난하는 데 있었다. 대구시장 홍준표도 윤석열 탄핵은 공멸이라며 단결을 요구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기회주의적으로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주말 장외 집회로 윤석열을 압박하더니, 4일에는 여권이 요구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으로 직진하기 보다는 위기가 지속돼 다음 선거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윤석열 때문에 지배계급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책임감 있는' 미래 국정 운영자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한다.

또한 모처럼 윤석열 퇴진 열기가 거리 집회로 표현될 조짐을 보인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 쟁점으로 축소하려 하거나, 임기 단축 개헌 운운하는 것은 정권과의 싸움에 진지한 투지가 있는지 의심케 만드는 대목이다.

불평보다는 기회를 살려 기층 투쟁을 고무해야

결국 윤석열의 반동적 공세를 확실히 좌절시키려면, 윤석열의 위기를 이용해 대중 투쟁이 더 커져야 한다. 거리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좌파와 노동운동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날로 심각해지는 생계비 위기에 맞서 사회·경제적 요구를 내세우며 투쟁을 더 키우는 동시

에, 그런 사회적 투쟁들을 노동계급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처럼 개혁 염원을 공염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운동에 동참할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드는 일이다.

좌파 일각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민주당 집권 돕기 운동이라는 식으로, '신 포도' 취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회피이다. 자기에게 선거적 이익이 오지 않을까 봐 중요한 전장에서 도망가는 것에 불과한 것을 좌파적 수사로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에 동참하길 꺼리는 것도 정치적 도피일 뿐이다. 지배계급은 복합 위기의 현 시기에 개혁을 추진하려고 윤석열 정부를 아직도 지지하는 것이다.

'그놈이 그놈'이라지만 좌파가 무책임하게 윤석열 퇴진 운동에 진지하지 못할수록 민주당만 반사이익을 얻기가 쉬워진다.

한편, 윤석열 퇴진 운동이 국회 탄핵을 목표로 하는 것도 민주당 의존, 보수 정치인 합류 기대, 보수적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용단을 기대하는 것으로 대중의 자주적 행동을 제약한다. 이 요구의 함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다음 말에서도 드러난다. "[탄핵을 위해서] 야당 외에도 보수 진영 내에서도 현 정권을 부끄러워하는 세력까지 아우르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에 적극 앞장서

운동의 구성·요구·방법이 노동계급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좌파에게 진정 필요한 자세다.

2016년과 무엇이 다른가

한편, 민주노총·진보당·전국민중행동 등이 주도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는 윤석열 퇴진 10만 총궐기를 선포했다. 이 집회가 성공하면 노동자 운동도 좀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이 "박근혜 정권 몰락의 서막인 최순실 태블릿PC가 보도되고 박근혜 지지율이 20퍼센트 이하로 폭락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제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돌파구를 열었고(특히 철도 파업), 새누리당이 분열하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이미 즉각 퇴진 시위가 서울에서만 130만 명에 이르렀다. 좌파들이 시작한 퇴진 운동에 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대중의 눈치를 보며 뒤늦게 슬금슬금 끼어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계급 대중이 주도력이나 견인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총·진보당·정의당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촛불행동과의 연대도 기피하는 바람에 좌파 측 퇴진 운동이 둘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윤석열의 위기는 상황을 바꿀 가능성을 보여 준다. 개방적으로 연대하며, 생계비 저항과 노동계급의 기층 투쟁을 고무해야 한다.

김문성

미국 마르크스주의자가 미국 대선과 파업, 저항에 관해 말하다

어거스트 님츠(아래 사진)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마르크스주의자로, 미네소타대학교 '아프리카계미국인 및 아프리카학' 교수다.

당신의 첫 투표 경험은 어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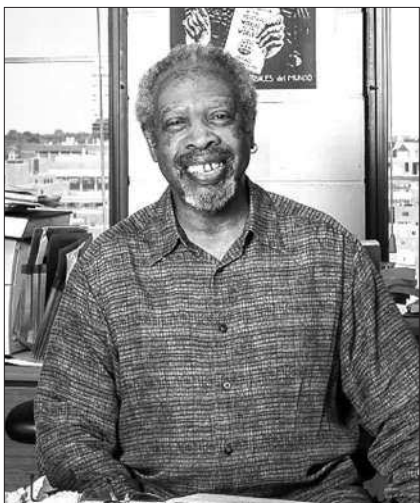
투표에 관한 제 첫 경험은 1964년 대선이었습니. 공화당 후보 배리 골드워터와 민주당 후보 린든 B 존슨이 맞붙었죠. 생애 첫 투표 기회였습니다. 당시의 선거연령인 21세가 갖 됐었거든요. 당시 저는 워싱턴 DC에서 대학원에 다니다가 가족이 사는 뉴올리언스로 돌아갔습니.

저는 유권자 등록을 했어요[미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따로 해야 공직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 당시 대선 투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다들 골드워터가 당선되면 핵전쟁을 시작할 거라고 했거든요. 흑인 평등권 운동도 시위를 멈췄습니.

저는 1955~1956년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을 도와서 흑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도운 경험이 있습니. 저 같은 흑인들의 투표를 막으려는 술수를 죄다 꿰고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설명회에 참석하고 유권자 등록을 했어요. 진을 빼는 긴 등록서식을 다 채워서 담당자에게 제출했죠. 그 담당자는 남부의 인종차별적 백인의 전형이었습니.

그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 보고는 제가 제출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 그러고는 이러는 겁니. “여기 이 부분 빼먹고 안 적었구만.” 저는 대꾸했죠. “제가 안 적어도 되는 항목입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줄을 그었어야지. 도로 가져가서 줄 긋고 2주 후에 다시 와.”



어거스트 님츠

저는 대학에 돌아가야 해서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선거는 “차악을 뽑는” 첫 선거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

4년 후인 1968년에는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 1964년과 1968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1968년에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었습니. 저는 거리의 대중운동 덕에 투표할 수 있었던 겁니.

곧 미국 대선입니.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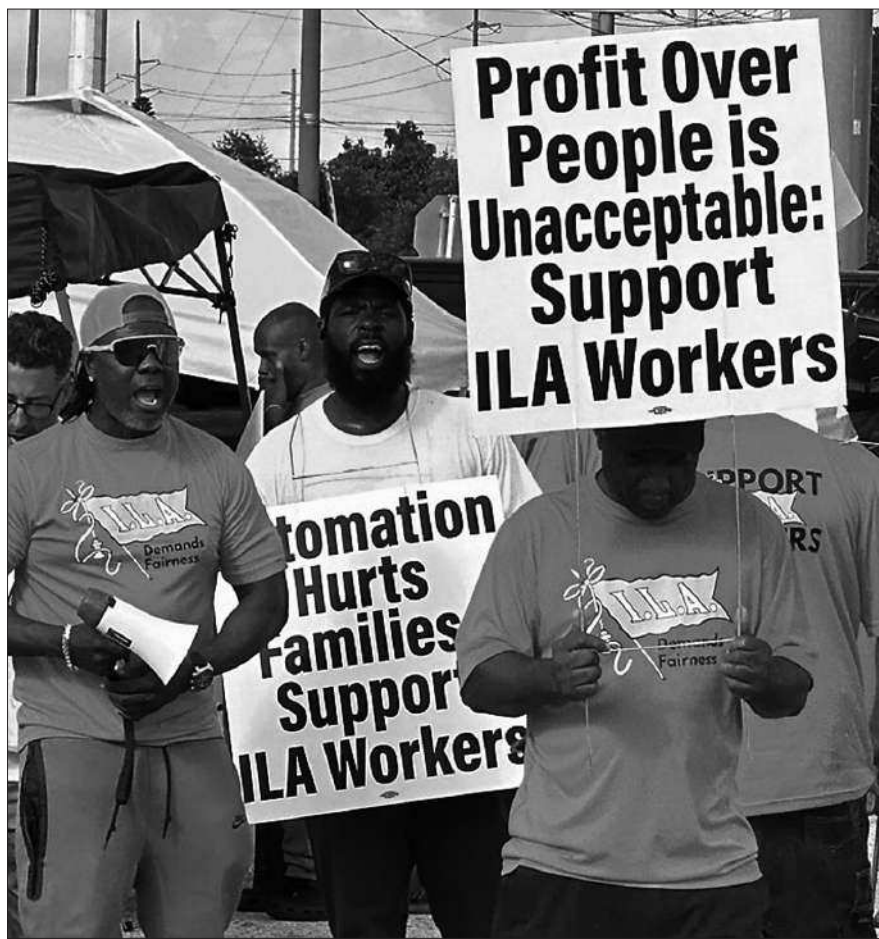
향후 며칠 동안 치러질 가장 중요한 투표는 보잉 파업 노동자들의 합의안 찬반 투표입니(관련 기사 16면). 그 투표는 미국 노동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

그런 중요한 노동조합이 파업에서 승리하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노동운동은 조금씩 전진해 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노조 결성과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

제 학생의 많은 수가 이번 대선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 두 악 중 차악에 투표하라는 끈질긴 유혹이 있습니. 이해해요. 그런 학생들에게 저는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 1849년에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도 차악에 투표하라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노동자 운동이 독자 후보를 낼 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여겼습니.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에게 투표하라고 호소했지요.

그러나 1년 후 그들은 그 입장을 재고합니.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경험을 거쳐야 했던 겁니. 그들은 자유주의자들이 공화제를 수립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자유주의자들은 너무 유약했습니. 1850년 3월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신들의 이전 입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자동맹이 활동을 중단하고 자유주의자들 속에 용해된 것이 실수였다고 평가했습니. 선거에서는 승산이 없더라도 독자 후보를 내야 합니. 선거에 출마하면 사상을 선전하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조직할 수 있어요. 또 자신이 받는 지지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독자 출마의 단점은 표가 분산될 수 있다



지난달에 승리한 미국 항만 노동자들 파업. 최근 수년 동안 미국 노동운동은 조금씩 전진해 왔다

는 것인데, 그럼에도 장점이 훨씬 중요합니.

리버럴을 지지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하는 말은, 과제를 언제까지고 미뤄 둘 수는 없다는 겁니. 그것이 우리가 남길 유산이 되서는 안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 이민 문제 같은 핵심 쟁점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노동계급 정당을 건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리스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버락 오바마의 당선이 인종을 불문한 노동계급의 이익을 증진시켰던가요?

민주당 지지가 줄어들자 민주당은 트럼프에 대한 공포를 다시 부추기고 있습니. 그러나 차악론은 오로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습니.

제가 삶에서 얻은 교훈은 대중운동이 변화를 낳는다는 것입니. 이걸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 진정한 변화는 투표함에서 나오지 않아요. 거리, 파업, 대체 인력 저지선, 바리케이드, 때로는 전쟁터에서 나오습니.

1857년 미국 지배자들은 노예제 문

제를 법원 판결로 해결하려 했어요. 1860년 대선에서 패한 노예 소유주들은 미국 연방에서 탈퇴해 버렸죠. 1861년 취임식에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개헌으로 타협을 시도했습니. 그러나 노예 소유주들은 내전(남북전쟁)을 시작했습니. 노예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전쟁이었던 겁니.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노예제, 즉 임금노예제를 끝장내야 합니. 이는 오직 거리 항쟁과 파업, 바리케이드로 가능합니다. 임금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계급이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합니.

그럴 기회는 어느 때보다 열려 있습니. 노동계급은 이전보다 훨씬 더 통합돼 있습니.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수준으로요. 자본주의의 거대한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사회는 그 위기를 미루고 있을 뿐입니. 그리고 위기는 노동계급의 급진화를 낳습니.

그러나 노동자들은 좌파적으로뿐 아니라 우파적으로도 급진화할 수 있습니. 저는 낙관적입니. 우리는 함께 행동해야 합니.

출처 Judy Cox, 'August Nimtz on the US election, picket lines and barricades' (2024. 11. 02) / 번역 김준호

팔레스타인, 레바논 ... 고조되는 중동의 전운: 제국주의, 저항, 혁명

시문 아사프 레바논계 마르크스주의자, 레바논의 좌파 언론 '알 만수르'와 '퍼블릭 소스'의 편집위원

이 기사는 10월 30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QR코드로 영상 보기)의 발제를 기사화한 것이다. 웹사이트에서 발제자의 토론 정리와 함께 볼 수 있다.



10월 7일 공격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에는 끝이 없고 경계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학살과 인종학살의 참상을 끊임없이 목도하고 있고 또 점령당한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폭력의 더 수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은 레바논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 티레를 공격하고 있고, 가장 찬란한 로마 유적지인 발벱도 공격하면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팔레스타인인들과 레바논인들을 절멸시키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2가지 전략이 부각됐습니다. 이스라엘의 1차적인 목표는 1917년 영국의 벨푸어 선언 이래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벨푸어 선언은 영국 정부가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에게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을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적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화한다는 이스라엘의 목표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그 지리적 한계는 여전히 그어지지 않았습



대(大)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은 이런 황당무계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

니다. 예컨대 시온주의자들 중 일부는 대(大)이스라엘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대이스라엘에는 레바논 남부도 포함되고, 시리아 땅이 지금보다 더 많이 포함되고, 요르단·이집트 영토 일부도 포함될 뿐 아니라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영토 일부까지 포함됩니다.

팽창의 욕구

이렇게 엄청난 영토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겠다는 구상이 황당무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최근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스라엘의 미래 국경을 언제 확정 지을 것이냐에 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구상을 갖고 있는 시온주의 파벌이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미래 이스라엘의 팽창을 위해 경계를 새로 그으려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특수한 유형의 식민주의 국가로 규정합니다. 이스라엘의 팽창주의는 그 정책, 미래 지향, 모든 군사적 행위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죠.

레바논인들은 항상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눈독 들이고 있다고 의심했는데, 레바논 남부가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이스라엘은

이를 매우 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남부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맞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바로 이런 팽창의 욕구가 시온주의 이데올로기의 원동력이고, 현재 이스라엘 국가 정책의 원동력이고, 이번 절멸주의 전쟁의 원동력입니다.

이스라엘 전략의 둘째 측면은 미국과 서유럽을 더 광범한 갈등으로 끌어들이는 것인데요, 특히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서방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했다가 재앙적으로 끝났다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곳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패배는 이스라엘이 지금 벌이는 도박의 판돈을 더욱 높였습니다. 특히 이라크에서 미국이 패배한 뒤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뒤로 역대 미국 정부들은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를 가리지 않고 더 이상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이나 점령에 휘말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네타냐후는 확전을 통해서 서방 제국주의가 이 지역에서 해내지 못한 것을 이루겠다는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라파흐 공격을 하지 마라,' '인도적 구호 활동을 방해하지 마라,' '레바논을 침공하지 마라'며 이런

저런 레드라인들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는 먹혀 들었습니다. 미국이 추가적인 이란발 미사일 공격을 막아주겠다고 요격 미사일 포대를 이스라엘에 들여보내기도 했고, 또 UN을 명목으로 파견된 독일 군함이 이스라엘을 위해 헤즈볼라의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과 영국은 키프로스에 있는 자기네 공군 기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거들어 왔고, 특히 저항 세력에 대한 첩보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드러난 바로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비용의 70퍼센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명확한 종착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몽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엄청난 야만적인 폭격으로 레바논인들을 수없이 죽이고 있지만, 이스라엘군도 탱크 피해가 크고 전사자가 너무 많아서 갈수록 끔찍한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는 [중부 지역이자 수도인] 베이루트로 곧장 진격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 전쟁에서는 레바논 국경 안쪽 1킬로미터까지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전쟁이 나크바의 해였던 1948년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948년 전쟁 이후에는 역사상 가장 큰 아랍 혁명의 물결이 무려 4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 베이루트에서 하산 나스랄라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

사진 출처 khameneir / Wikimedia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의 피해는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보기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략, 정확히 말하면 오래된 전략을 재탕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즉 레바논 내에서 종파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또 한 번 유혈 난자한 내전의 시대로 몰아넣겠다는 전략입니다.

과거에도 레바논은 그런 내전을 20년 동안 겪은 바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네타냐후가 TV에 나와서 레바논인들에게 이렇게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저항 세력을 무장해제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레바논 전체를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이지요.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들은 모두 하산 나스랄라를 비롯한 헤즈볼라 지도자들을 살해한 이후 레바논을 손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상대라고 만만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외무장관,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총리 등 각종 인사들이 레바논에 와서 돈다발을 흔들며 “레바논 정부군이 남부의 저항 세력을 몰아내면 우리가 1.5억, 2억 유로를 주겠다”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들이 실제로 종파 간 내전을 촉발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06년 레바논을 침공했다가 패배한 후 얻은 교훈 하나는 무장 저항 세력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그 저항 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대의 네트워크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당시 레바논에서는 거대한 대중운동이 저항 세력과 연대하며 벌어졌습니다. 그 운동은 단지 무장 저항뿐 아니라 레바논 남부, 베이루트 남쪽 다히야의 시아파와 연대하는 더 광범한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 이스라엘은 다히야 지역을 완전히 파괴했고 레바논 남부의 여

러 시아파 마을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난 온 시아파들을 위해서 수니파 무슬림, 기독교인, 또 드루즈파(산에 근거지를 둔 종파)가 자기 집을 내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 지역들에서는 수년 동안 종파 별로 서로 싸우고, 납치하고, 살육하는 일이 자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는 모두 서로 문을 열고 피난민을 환대해 줬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종파주의의 영향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연대

저는 2006년 당시에 구호단체들을 따라서 레바논 남부를 다녔는데, 당시 시아파 마을들은 다 파괴됐지만 기독교인인 마을들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구분 없이 모든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동네를 가리지 않고 모든 병원을 다 파괴하고 또 민방위, 구조대원, 응급처치반 모두를 살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멸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시민사회가 레바논

남부의 저항 세력을 향해 보여주는 연대를 응징하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이 일부 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전투 지역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레바논 최북단에 있는 기독교인 마을을 폭격했습니다. 그 마을로 피신 갔던 시아파 23명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시아파나 팔레스타인인들을 보호해 주는 대가가 굉장히 크지만, 지난 열흘 동안의 전개를 보면 사람들 대다수 사이에서는 연대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연대는 2006년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이 점은 중요합니다. 이번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 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과 레바논 남부의 저항 세력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작정인 것 같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가자지구도 그 결과인데 하마스를 여전히 패배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의 군사적 목표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번 인종 학살을 초기에 지지했던 서방 정부들도 대부분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보수당 정부

도 무너졌고 미국의 바이든-해리스 정부도 곧 그럴 것 같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정부들은 모두 자국 정치권에서 가라앉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지배계급의 한 부분과, 독일 지배계급도 점점 더 네타냐후의 전쟁, 특히 레바논 전쟁을 끝까지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레바논도 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처럼 고분고분하고,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고, 팔레스타인 식민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이 단지 팔레스타인 문제나 이스라엘의 중동 야심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벌이는 경쟁의 일환이라는 점도 봐야 합니다. 미국은 단지 레바논의 음식이 좋아서 레바논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

미국은 베이루트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국 대사관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을 레반트 지역(시리아·이라크·레바논·요르단) 전체에서 저항 세력들에 맞설 작전 본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미국의 이런 전략에서 이스라엘이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죠.

과거에는 전선이 걸프만을 따라 그어져 있었습니다. 즉, 서방의 중요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른바 반제국주의 세력인 이란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에서 서방이 패배한 뒤로 이 전선이 지중해 동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둘 다

▶ 10면으로 이어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레바논의 미국 대사관 미국은 레바논을 중동에서 저항 세력에 맞설 작전 본부로 삼으려 한다

사진 출처 미 대사관

▶ 9면에서 이어짐

중국에 가장 많은 석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 지역에 공장들을 짓는 핵심 자본이고, 알제리에서 석유 산업을 되살리는 중추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국 자본은 모든 곳에 있고 또 서방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아랍 세계의 거리에서는 아무도 중국 국기를 불태우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1974년에 미국과 체결했던 협약, 즉 석유를 달러화로만 팔겠다는 협약을 갱신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러가 아닌 화폐로 석유를 팔기 위해 브릭스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미국 제국주의가 약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고 패퇴한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경제력 측면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군사적 영향력 면에서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흐름을 너무 과장하지도 또는 간과하지도 않으면서, 이 추세가 현재 벌어지는 전쟁의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원적 변화

마지막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아랍 세계에서 벌어진 근원적인 변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래에 무시무시한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60세인데요. 제가 어렸던 1960~1970년대 레바논에서는 인구의 80퍼센트가 농촌에 살았습니다. 제 친구 중 제가 속했던 종파 바깥에 속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레바논 인구의 90퍼센트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다른 아랍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1948년 나크바 당시 압도 다수의 아랍인들이 빈농이었고 심지어 1982년 레바논 침공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늘날에는 압도 다수 아랍인들이 노동계급이거나 아니면 그와 가까운 도시 빈민이고, 또한[종교를 넘어] 서로 섞여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레바논에서 이뤄지는 결혼 대부분이 서로 다른 종파 간에 이뤄집니다. 참고로 레바논에는 종파가 18개나 있는데,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결혼 또는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결혼처럼 종파를 넘는 결혼이 대다수입니다.



사진 출처: Mosaberrig (플리커)

아랍에서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 2011~13년 아랍의 봄

일터의 대다수도 이처럼 종교 집단을 떠나 섞여 있고 친구 집단들도 그렇습니다. 또 노동계의 거주지들도 점점 커지면서 여러 종파가 섞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만 세기 동안 파업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 파업들에는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즉 30년간의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계급 분단이 레바논에서의 주된 분단선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9년 '10월 혁명'(실제로 혁명은 아니었고 엄청난 대중항쟁이었습니다)이 있습니다. 그 항쟁은 레바논의 부패한 종파주의 체제에 맞선 것이었고 레바논 방방 곡곡을 뒤흔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계급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항쟁에 가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레바논인들의 의식이 크게 도약했습니다. 레바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배고픔은 당신이 기도하는 날이 무슨 요일인지 신경쓰지 않는 불신자다.” (무슬림들은 기도하는 날이 금요일이고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이라는 차이를 염두에 둔 속담입니다.)

많은 논자들이 이번 전쟁을 1967년 3차 중동전쟁과 비슷하다고 말하곤 하는데,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골란고원을 차지하고, 요르단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서안지구를 빼앗고,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빼앗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전쟁이 1967년이 아니라 나크바의 해였던

1948년과 더 비슷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967년에는 아랍 정권들이 비록 한심한 수준이었을지언정 이스라엘에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1948년 전쟁 이후에는 역사상 가장 큰 아랍 혁명의 물결이 무려 4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명의 물결은 아랍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던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전쟁은 1948년 때보다도 더욱 큰 혁명의 물결을 촉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혁명의 물결에서는 참가자 대다수가 농민이 아니라 노동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족주의 정부를 수립해 서방 제국주의자들과 타협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큰 규모의 아래로부터 혁명에 나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르단과 이집트 같은 정부가 자국 거리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아랍의 봄]에 우리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 혁명을 성공시키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역 천경록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63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ws.or.kr/join




민족 해방 운동 지도부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조건 없이 지지해야 한다

역사를 보면 종교 단체가 저항 운동을 벌인 사례가 많다.

한국에도 예컨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나 민중신학 계열 개신교 교회들이 있다.

압제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할 수 있다면, 압제에 맞서는 무슬림들과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적잖은 좌파도 종교 사상을 문제 삼으면서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운동인 하마스와 거리를 둔다. 심지어 반제국주의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좌파들도 그러하다.

그런 좌파들은 '세속 대 종교'를 좌우를 구분하는 잣대로 삼는다. 예컨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그 잣대로 하마스를 팔레스타인 내 운동의 우파로 분류한다.(이스라엘에 타협해 온 파타를 엘토당토않게 좌파로 분류하면서 말이다.)

유독 이슬람 저항 운동에 대해서만 꺼림칙해 하는 태도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한국 좌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종교 사상을 내세워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은 과거에도 있었다.

1916년 영국 제국주의에 맞선 아일랜드 부활절 봉기를 이끈 것은 가톨릭 교도들이었다. 당시 많은 좌파들이 그 봉기를 가톨릭 광신도들의 준동으로 폄훼하며 지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레닌은 이렇게 일갈했다.

“식민지와 유럽에서 약소 민족들의 반란, 편견에 찌든 프티부르주아지 일부의 혁명적 분출, 지주·교회·군주제의 억압이나 민족 억압에 대항하는 의식화하지 않은 노동계급 및 반(半)노동계급 대중의 운동 없이 사회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혁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물질적 조건과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라 종교 사상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영감에 근거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운동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들의 종교 사상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마스는 제1차 인티파다와 제2차 인티파다 등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에서 자라났고, 광범한 대중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이끌고 있다. 즉, 하마스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선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운동이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



팔레스타인 저항에 서슴없이 연대한 지난해 10월 11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

엘 공격은 시온주의 프로젝트가 결코 완수될 수 없는 것임을 각인시키고 이브라힘(아브라함) 협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새로운 중동 지배 전략을 망쳐냈다. 그리고 유례없는 규모의 국제적 연대 운동을 촉발했다.

하마스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의 장렬한 최후는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그런데 하마스의 저항은 지지하지만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찻찻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헤즈볼라가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를 편들어 시리아 혁명을 분쇄하는 데 일조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에게 살해당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시리아 혁명에 우호적이던 이집트의 무르시 정권이 2013년 7월 군부 쿠데타로 타도되고 이집트 혁명이 패배했을 때 이를 환영하기도 했다.

과거와 현재

그러나 현재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에 맞서는 저항 세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헤즈볼라의 승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타격을 주고,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

사실 역사를 보면 계급 투쟁이나 혁명적 좌파를 공격하는 민족 해방 세력은 술하게 있었다.

예컨대 베트남 민족 해방 지도자 호 치민은 1945년에 당시 베트남을 점령

하고 있던 일제가 패망하면서 작업장을 접수한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베트남 트로츠키주의자들을 학살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응단 폭격과 학살을 자행하는 1960년대와 70년대 상황에서 국제적 좌파는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을 지지하지 말아야 했을까?

오히려 많은 좌파 활동가를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용감한 저항에 연대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 제국주의는 큰 타격을 입었다.

물론 러시아 혁명이 레닌이 경고했듯이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 투쟁에 “불

은 칠”을 해선 안 된다.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부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고 있더라도 흔히 그 목표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운동이라면 일단 조건 없이 지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언제나 현실의 구체적 투쟁 속에서 피아식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혁명가들이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해 견지해야 할 “무조건적이지만 무비판적이지는 않은 지지”의 태도이다.

이재혁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 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엠코리아 현재호: 서울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KT 노동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에 저항하다

KT 사용자측의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자회사 전출 신청 마감 연장과 협박·회유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 최종 마감일인 11월 4일까지 목표 인원(3700여 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11월 5일 사용자측은 1723명이 자회사 전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T는 10월 10일 통신 선로 유지·보수, 전원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6000여 명을 자회사 전출, 희망퇴직 등으로 쫓아내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분노스럽게도 KT노조(제1노조) 집행부는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배신적 합의를 했다.

사용자측은 구조조정 대상 직원들에게 자회사 전출 또는 희망퇴직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KT민주동지회(KT노조 내 민주파 조합원 모임)와 제2노조인 공공운수노조 KT지부(KT새노조)는 구조조정을 거부하자고 호소하는 활동을 벌였다.

전출 신청 마감일인 10월 28일에 신청자는 사용자측 목표 인원의 3분의 1인 약 1100명에 불과했다.

이에 사용자측은 전출 신청 기간을 11월 4일까지 연장했다. 그리고 직원 설명회와 1:1 면담을 늘리며 직원들을



사용자 측의 전출 협박·회유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용기 있게 저항하고 있다

압박했다. 안창용 부사장은 10월 30일 직원 설명회에서 잔류 직원은 외곽으로 배치되어 '모멸감'과 '자괴감', 스트레스 때문에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비열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 영상이 MBC 등 주요 언론에 폭로되자, 노동자들의 공분이 일었다. 사용자측은 이후 직원 설명회를 취소했다.

그리고 김영섭 사장이 특별 사내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늘어 놓으며 신설 자회사를 홍보했다.

하지만 이 방송에서 김영섭은 구조조정의 목적이 '비용 절감'이라는 사실은 솔직히 밝혔다. 일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임금과 고용만 후퇴한 것이다.

사용자측의 구조조정 추진이 난항을 겪자,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사용자측은 조만간 잔류 직원들을 영업직 부서로 발령을 낼 듯하다. 격·오지 발령, 과도한 영업 목표 부여와 성과 관리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은밀하게 자회사 전출 희망자를 포섭하며 잔류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이에 맞서 잔류 노동자들은 저항에 나서야 한다.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해 온 KT새노조와 KT민주동지회는 이미 잔류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공동 활동에 착수했다.

지역별·전국적 모임을 만들어 결속력을 높이고,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열어 사용자측의 괴롭힘을 폭로하며 싸워야 한다.

사용자측의 협박과 책략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전출을 거부하며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줬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겠지만, 2014년 구조조정 직후 만들어진 'CFT(현 업무지원단)'에서 싸웠던 것처럼(관련 기사: 본지 126호 'KT 노동자들이 강제 퇴출 시도에 맞서 저항을 시작하다'), 버티고 저항하면 회사의 괴롭힘과 임금 삭감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이원준 KT 노동자

현대중공업노조

사용자측의 양보를 끌어 내려면 투쟁 수위를 올려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8월 28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0월 중순경부터 파업 시간을 늘렸고,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매일 7시간 파업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에 빼앗긴 임금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특히, 고물가·고금리로 생계비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계급(과 그 가족)에겐 임금 인상이 매우 절실하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지난해 기본급 인상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심지어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관리자와 경비로 이루어진 구사대를 대규모로 조직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구사대 폭력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온 노동자가 있을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다쳤다.

사용자측의 폭력이 가장 심각했던 10월 30일엔 구사대를 1000여 명이나

모았다. 당일 파업 노동자가 500여 명이었으니 갑절이나 됐다. 노동자들은 구사대의 포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천막을 쳤다. 그러자 사용자측은 천막 안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덩치 큰 구사대를 앞세워 무지막지한 폭력을 써가며 천막을 무너트렸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수십 명이 다쳤다. 구사대의 폭력을 제지하던 현대중공업노조 사무국장은 코뼈가 부러졌다.

구사대의 폭력 영상이 노동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마치 군사 독재 시절 노동자 투쟁을 공격하는 구사대 폭력이 연상될 정도의 잔인한 폭력행위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비난했다. 다음 날 파업에 200여 명이 더 동참해 분노를 표했다.

그러자 사용자측은 노동자들도 폭력을 사용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러나 안전모와 안면보호대로 무장한 구사대가 물려와 우리를 폭행하고 물건을 파손시키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용자측이 이렇게나 폭력을 사용하며 투쟁을 공격하는 이유는 이윤에 타격이 같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지금 조선업은 호황기다. 사용자측 발표에 따르면 선별 수주를 하고 있음에도 이미 연간 수주 계획의 97퍼센트를 달성했고, 영업이익도 6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 가고 있다.

적반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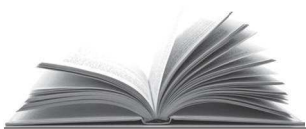
현재 현대중공업 공장은 거의 풀가동 중이다. 그럼에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납기 지연을 걱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노조가 파업 대오를 늘리는 전술을 펼 때 신경질적으로 폭력을 사용해 막았다. 특히 10월 30일엔 24시간 물량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사대를 대규모로 동원해 폭력적으로 천막을 철거해 버린 것이다.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의 약점을 찾아 집중 공격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나 그렇듯 회사의 약점은 이윤에 타격을 입는 것이다. 많은 파업 노동자들은 더 크고 강력한 투쟁으로 사용자측을 압박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려면 파업 대오를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용자측의 여론전에 단호하게 맞서며 기층의 투지와 자신감을 끌어 올릴 투쟁 전술이 필요하다. 파업이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아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생산을 타격하는 집중 투쟁이 효과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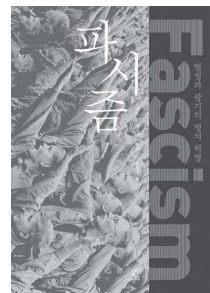
연대 투쟁도 강화돼야 한다. 지난 10월 16일 HD현대 소속의 조선3사 노동조합(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공동 파업은 사기를 높이는 효과를 냈었다. 이런 기층의 연대와 금속노조와 진보정당 등의 연대도 확대돼야 한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서평 |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로버트 O. 팩스톤)

파시즘을 예리하게 분석한 명저



파시즘 : 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

로버트 O. 팩스톤 지음, 손명희·최희영 옮김,
교양인, 607쪽, 27,000원

유럽에서 파시스트 정당들이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은 지난 총선 1차 투표에서 33퍼센트를 득표해 1위에 올랐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를 계승하는 이탈리아형제당의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에 앉아 있다. 독일에서는 파시스트들이 점점 지배적이 돼 가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세력을 키우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8월 파시스트들이 난민 거주 숙소에 불을 지르는 테러를 감행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미국 내 극우·파시스트뿐 아니라 전 세계의 파시스트들을 고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파시스트 세력이 눈에 띄게 존재하지 않지만, 파시즘의 부상이 오늘날 국제적 현상인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 정치적 대비와 무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파시즘 개념은 흔히 오남용돼 왔다. 대다수 좌파도 파시즘 개념을 모호하고 느슨하게 사용한다. 예컨대 권위주의 독재나 우파 정부의 통치를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식이다. 한국에서도 윤석열을 '검찰 파시스트'라고 부르는 좌파들이 있다.

그런 부정확한 설명은 파시즘의 진정한 기반과 성격, 특별한 위험성을 오히려 흐리고 파시즘에 맞서는 데서 잘못된 대안을 좇게 만든다. 파시즘에 제대로 맞서려면 파시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게다가 오늘날 파시스트 정당들이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감추려고 가면을 쓴다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프랑스 국민연합이나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공식 정치에서 용인될 만한 정상적 정당으로 보이려 애쓴다. 선거에 출마하고 주류 언론에 얼굴을 비치며 정상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세를 확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파시스트들은 자신이 반자본주의적·혁명적 세력인 양 행세한다. 주류 정당들과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흡수하려는 것이다.

파시즘에 제대로 맞서려면 파시스트 정당들의 가면을 벗겨 내고 그 실체를 꿰뚫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파시즘을 절망에 빠진 중간계급에 기반을 둔 반동적 대중 운동이라고 봤다. 트로츠



키는 파시즘에 맞설 전술로 공동전선 투쟁을 강력히 촉구했고, 파시즘을 완전히 뿌리뽑으려면 파시즘을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도 맞서야 함을 강조했다.(관련 기사: 본지 447호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과 대안')

로버트 O. 팩스톤의 《파시즘》은 이런 파시즘을 이해하도록 돕는 훌륭한 참고서가 돼 줄 것이다. 현대사 연구와 파시즘 연구의 권위자인 로버트 팩스톤은 1970년대에 프랑스 비시 정부 연구에서 나치의 피해자로만 여겨지던 프랑스 국가가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을 입증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04년에 팩스톤은 40년에 걸친 파시즘 연구를 집대성해 이 책을 출간했다. 파시즘에 대한 그의 풍부한 설명은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살아 움직이는 파시즘

흔히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두고 파시즘을 설명한다. 예컨대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개인사, 괴벨스의 연설, 나치당의 강령을 살펴보는 식이다.

그러나 팩스톤은 파시스트들의 말보다 실천을 중심에 두고 파시즘을 설명한다.

특히, 역사적 맥락과 다른 사회 세력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시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한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파시즘을 봐야 한다. 탄생 순간부터 격변을 맞으며 생을 마치는 마지막 단계까지 파시즘과 사회가 형성한 복잡하게 얽힌 상호관계 속에서 파시즘을 봐야 한다.”

이런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파시즘이 어떻게 생겨나고 작동하는지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결정론적 설명을 지양하는 것도 팩스톤의 장점이다.

팩스톤은 파시스트, 주류 우파, 좌파 등 역사 속 행위 주체들이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본다.

예컨대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주류 지배자들에 의해 “끌어올려졌”던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정치 및 경제 체제의 위기가 파시즘이 들어설 틈을 열어 주기는 했지만, 파시스트들을 실제로 그 틈 안에 넣어 준 것은 일부 강력한 기득권 지도자들의 불행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팩스톤은 파시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정보들을 바로잡고, 파시즘의 진정한 실체를 차근차근 밝혀 나간다.

또한, 파시스트들이 스스로 표방했던 것과 그들이 실제로 실천한 것을 비교하며 파시즘의 참모습을 폭로하기도 한다.

예컨대 파시스트들이 내세우는 반체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꼬집는다.

“어떤 파시즘 정권도 위계질서를 바꾸지 않았다. 기껏해야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여 경제를 주도했을 뿐이었다.”

팩스톤의 지적은 반자본주의·반체제 수사를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의 파시스트들에게도 적용된다.

팩스톤은 집권한 파시즘 운동이 “나를 다스리려면 군, 경찰, 사법기관 등 통치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기구들과 강력한 사회·경제적 세력의 협조 내지는(적어도) 묵인을 얻어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권력을 찬탈한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에 의해 “끌어올려졌다.”

팩스톤은 파시즘 운동 내부의 긴장을 간파해 내기도 했다. 파시스트 정당의 성장 과정에서 주류 엘리트와 “지배를 위한 타협”을 하려는 지도자들과 “순결주의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파시즘 정당들은 새로운 동맹 세력[주류 엘리트들]과 더 깊이 공조하게 됐으며 그 결과 당을 분열시키고 일부 순결주의자들을 소외시키는 위험을 무릅쓰야 했다.”

예나 지금이나 파시스트 정당이 “급진화”와 “정상화”(용인될 만한 공당으로 보이기) 사이에서 동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파시스트 정당이 ‘정상적 정당’ 가면을 쓰는 것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맞서 싸운다면 이질적 사람들이 모인 파시스트 정당을 능히 깨부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파시즘을 다섯 단계로 나눠 살펴본 뒤, 팩스톤은 파시즘을 이렇게 정의한다.

“공동체의 쇠퇴와 굴욕, 피해에 대한 강박적 두려움과 이를 상쇄하는 일체감·에너지·순수성의 숭배가 두드러진 특징인 정치 행동의 한 형태이자, 대중적 기반을 가진 열성적 민족주의 투사들의 정당이 전통적 엘리트층과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민주적 자유를 포기하고 윤리적·법률적 제약 없이 ‘구원하는 폭력’을 휘두르며 내부 평화와 외부 팽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 행동의 한 형태다.”

이는 트로츠키의 파시즘 규정과 일맥상통한다.

팩스톤의 파시즘 설명은 매우 훌륭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팩스톤은 스탈린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동일시한다. 예컨대 스탈린주의적 파시즘 해석을 정통 마르크스주의 해석으로 본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상식이므로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했던 스탈린주의 공산당은 사회파시즘론 같은 초좌파적 종파주의 노선과 민중전선 같은 계급 협력 노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반파시즘 투쟁을 패배로 이끌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파시즘 분석과 반파시즘 투쟁에서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기여해 온 바가 있다.

오늘날 재부상하는 파시즘에 맞서는 데서도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은 중요한 무기가 된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위에 서서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과 공동전선 전술을 계승한 국제사회주의 경향은 영국과 그리스에서 효과적인 반파시즘 투쟁을 건설해 왔다.

그럼에도 이 책은 꼭 읽어 볼 가치가 있다.

이재혁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슬람은 동성애 혐오적 종교인가

성지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약칭 팔연사) 집회에 참가하는 한 무슬림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대뜸 내게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는다. 이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라 불편하다.” 그는 성소수자 포용적인 입장이었다.

무슬림도 여느 인구 집단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소수자를 포용하거나 적극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 (최일봉, 본지 523호, ‘이슬람 혐오는 무엇이고 왜 잘못됐냐를 보라’)

하지만 다양한 무슬림을 하나로 묶으려 ‘무슬림은 동성애 혐오적’이란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이는 이슬람이 후진적이고 불관용적이라는 생각의 한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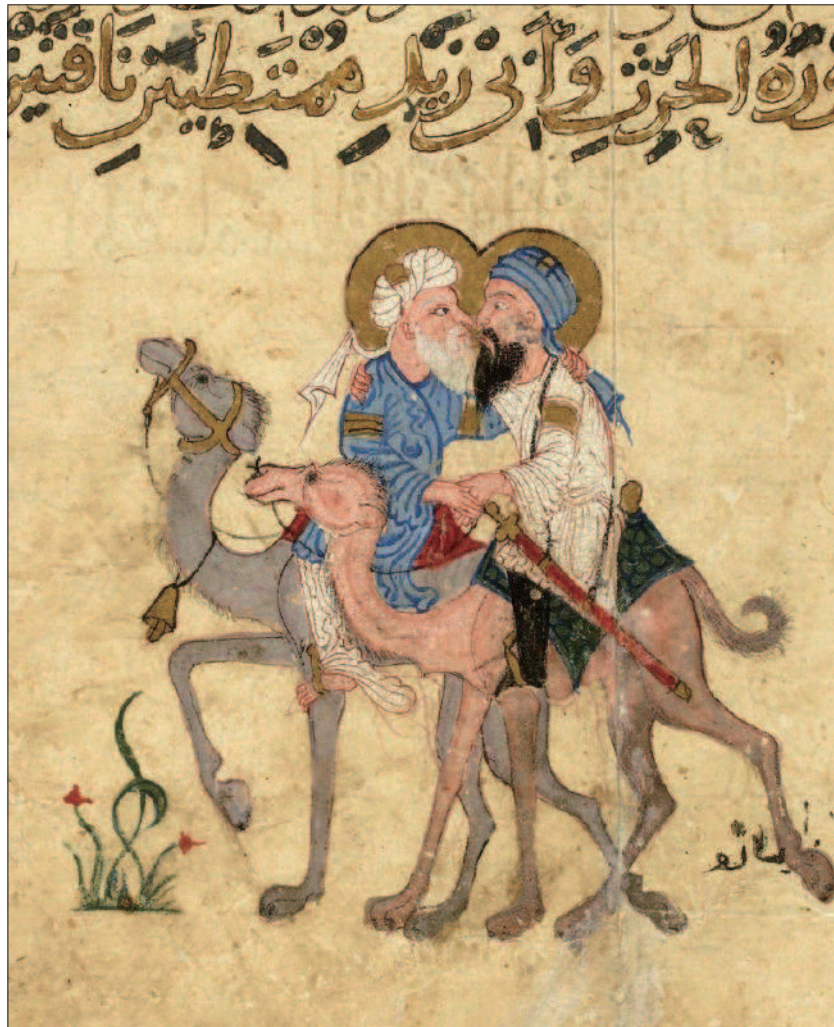
일부 좌파도 이런 편견을 공유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학생 조직이 개최한 대학 강연회에서 발제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쿼어 공동체들에게 나쁜 만큼이나, 우리는 하마스에 주도되는 저항 지도부에 대해 침묵한 채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

하마스의 꿈이 실현된다면, 그곳에선 여성과 쿼어와 주변화된 집단들에 대한 엄청난 억압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난여름 동안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에서 (성소수자가 팔레스타인인에게 연대하는 것을 넘어서) ‘쿼어’가 다소 불비례적으로 강조된 것의 기저에도 이와 비슷한 편견이 작용한 듯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편견을 차별화의 변별적 표지로 활용하려 하는 듯하다.

하마스 강령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족 해방 투쟁의 지도부인 하마스한테서 유독, 맥락 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문제 삼는 것은 이슬람주의와 이슬람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또한 이런 태도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인들의 지지를 받는 대중 정당이고 변화해 왔음을 보지 못한다(않는다). 하마스는 2017년 여성에 대한 차별적 강령을 삭제하고, 2021년 자밀라 알산티를 여성 최초의 정치국원에 임명했다. 그 회원과 지지자들의 압력 때문이었다. 유물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의식(사상)은 현실의 변화와 투쟁 속에서 변화한다.



중세 시기 이슬람 문화권에는 다양한 성적 존재와 관계가 존재했고 관대하게 수용됐다

서방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

‘이슬람이 유난히 동성애 혐오적’이라는 주장은 서방의 우월성과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방 지배자들이 고안하고 체계적으로 조장한 것이다.

2011년 12월 국제 인권의 날, 당시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유엔 기념 연설에서 이를 천명했다. 그는 동성애 권리를 ‘세계의 보편 인권’이라 선언하고, 미국이 이를 위해 앞장설 것이며,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국가들(주로 중동의 국가)을 규탄했다. 당시 오바마 정부가 지속하던 ‘테러와의 전쟁’은 ‘아랍의 봄’과 충돌하고 있었다.

그후, ‘핑크워싱’은 미국 지배자들이 사용하는 대외 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2019년 그 자신을 포함해 성소수자 혐오자가 득시글한 트럼프 정부도 이란을 압박할 한 수단으로 ‘동성애자 인권’을 내세우며 “동성애자 비범죄화를 위한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이스라엘도 자신을 ‘동성애자의 친구’로, 팔레스타인인들을 ‘동성애 혐오 아랍인’으로 묘사하는 온갖 허위 광고를 해대며 인종청소를 정당화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프로파간다의 한 효과는 자국의 성소수자가 직면한 혐오와 차별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성소수

자 혐오는 서방에서도 만연해 있다.

1960년대 이전에만 해도 미국에서 동성애자라는 게 드러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미국 성소수자들이 싸웠기 때문이다.

2010년대 중엽 이후 자본주의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극우가 부상하면서 미국 성소수자들의 처지는 다시 악화되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 범죄도 늘었다.

2015년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소수자 자궁심 행진에서 한 초정통파 극보수 유대인이 달려들어 참가자 6명을 칼로 찔렀고, 그중 한 명이 사망했다. 그는 탈무드에 동성애가 금지돼 있다며 자신의 공격을 정당화했다.

한국에서는 10월 27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60~70만 명 규모의 보수 기독교인들의 집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렸다. 주최 측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이렇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의 성혁명적 흐름을 끊어지게 하시고 이를 긍정하고 지지하는 거짓과 꾀변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성소수자 혐오가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준다. 성소수자 혐오는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한다.

서방 제국주의의 동성애 혐오 수출

동성애 혐오는 산업 자본주의가 한창 발전하던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처음 생겨났다. 당시 지배계급은 노동력 재생산을 담당할 가족을 재건·강화하기 위해 가족 밖의 성관계를 체계적으로 억압했다. 1885년 남성 간 성적 행위가 모두 범죄로 규정됐고, 그즈음 동성애자(뒤이어 이성애자)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동성애 차별과 자본주의 가족제도 존속의 이러한 본질적인 관계는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처럼 본디 성소수자 혐오는 서방의 현상이었다. 그런데 서방 제국주의는 동성애 혐오를 식민지에 수출했다. 오늘날 중동·아프리카에서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형법은 영국 등 서방 강점기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컨대 팔레스타인에는

1936년 영국 위임령하에서 남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형법의 일부로서 도입됐고, 이는 이스라엘 건국 후에도 유지됐다. 이전에 존재했던(때로는 비난받았지만, 대체로 수용됐던) ‘비규범적 관계’는 이제 범죄로 다스려졌다.

파키스탄에서도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형법 377조는 식민지 시대의 잔재다. 파키스탄 성소수자 하나는 이렇게 말했다.

“100여 년 전에는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함으로써 우리를 ‘문명화’하려 애쓴 서구가 현재는 애초에 자신들이 범죄로 만든 동성애 행위를 비범죄화함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야만인’으로 만들고 자신에게 우리를 교정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면서 우리를 문명화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알곡다.”



미국과 이스라엘 핑크워싱의 기만과 위선

꾸란과 이슬람 사회의 전통

흔한 편견과 달리, 7세기경에 편찬된 꾸란은 동성 간 성행위 대한 처벌은커녕 명확한 비난도 말하고 있지 않다.

꾸란에서 동성 관계를 비난한다고 알려진 구절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예언자 롯과 하나님(유황) 비를 내려 벌한 소돔의 백성 이야기이다(꾸란 제7장 80~84절). 여기서 소돔 백성은 동성애의 죄를 범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알 안달루스의 이슬람법학자 이븐 하즘(994~1064)은 롯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이었으며 예언자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구절은 꾸란 제4장 16절에서 발견된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두 남자들이 비합법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두 사람의 명예를 빼앗아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잡는다면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를 수락하는 자비로운 분이시라.”

여기서 “둘”을 일부 학자들은 동성간 관계로 인식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두 남자와 한 여자, 즉 ‘비합법적’ 이성 간 관계로 보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 구절은 자비로운 신의 권능에 대한 설명으로 여겨진다.

몇 세기가 지난 후, 예언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 하디스는 좀 더 분명히 동성간 성행위를 부정적으로 다루며 상당한 엄벌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되려면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목격자가 있어야 했다. 목격자는 무슬림 남성으로 품성이 좋아야 하고 성기 접촉을 목격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 유죄 선고를 내리기가 어려웠다.(유죄를 받으면 거의 사형에 처해졌지만 말이다.)

이는 이슬람 율법이 남성간 성관계를 죄악시켰지만 현실에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다뤘음을 의미한다.

실제 19세기 이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다양한 성적 존재와 관계가 존재했고 때로 관대하게 수용됐다는 증거는 많다. 인류학자 스티븐 머리와 월 로스코가 편집한 《Islamic Homosexualities》(1997)는 그에 대한 풍부한 사실을 밝혀 낸다. 당시 성인 남성들은 종종 10대 소년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여겼다. 이런 호감은 죄이지만, 덕이 높은 남성도 음주에 빠지듯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됐다.

만약 성적 행위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18세기 카이로 알아즈하르대학교 총장을 30년 넘게 지낸 압둘라 알샤브라위의 시 모음집에 실린 시는 대부분 연애시였고, 어린 남성을 향한 것이었다.

바로 이런 관대한 정서가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식민지가 미개하고 열등하다는 한 근거가 됐다.

이슬람 혐오를 반대해야 한다

오늘날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동성애 불인정은 지역 전통이나 이슬람 종교의 산물이 아니라 자본주의화(또는 그것을 지향한 근대화 운동)의 산물이다.

제3세계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자들은 제국주의에 맞서면서도 흔히 제국주의자들의 성관념을 수용했다. 당시 민족 해방 운동이 흔히 본보기로 삼았던 소련(스탈린주의 체제였다)에서도 동성애가 불법이었다.

신생 독립국의 지도자들은 ‘전통 문화’의 위대함을 옹호하면서, 동성애를 외부 세력 침략의 결과로 간주했다. 그들은 원래는 서구의 것이던 동성애 처벌법을 활용해 성소수자를 억압했다.

그물

이처럼 이 지역의 성소수자 문제는 제국주의라는 그물과 얽히고설켜 있고, 그에 대한 대중의 정서도 단순치 않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세

워지면서 퀴어 팔레스타인인에게는 복잡한 억압이 시작됐다.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서구의 관념과 문화적 표현이 팔레스타인 사회에 유입됐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아랍 문화의 정통성과 아랍 정체성에 도전하는 외부의 침입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정서는 이스라엘이 강요하는 외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신의 유산을 보호하고 토착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강한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재한 팔레스타인인 시마 자예드)**

(친)서방 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슬람 혐오는 서방 지배자들과 우익이 자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가리고 또한 국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데 사용되는 핵심 이데올로기다. 성소수자 인권을 명분으로 한 이슬람 혐오에 조금치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 꾸란에 대한 사실관계 부분은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의 임병필 HK연구교수의 〈샤리아에 규정된 동성애와 이슬람사회의 동성애 인식〉(2010)을 참고했다.

** 시마 자예드, 〈Queer Lives at the Crossroads: Examining Israel's weaponizing of LGBTQ+ Policy vis-à-vis Palestinian Queer Experiences〉(2023)



미국 보잉 파업이 승리하다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의 보잉 공장 노동자들이 흔들림 없는 파업으로 핵심 요구를 대부분 관철했다.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IAM) 751지부의 보잉 공장 조합원 3만 3000명은 임금 40퍼센트 인상, 상여금 부활, 지난 단협에서 삭감됐던 퇴직 연금 사측 기여분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9월 13일부터 50일 가까이 파업을 지속해 왔다.

그러던 중 10월 31일 사측이 4년에 걸쳐 기본급 38퍼센트 인상, 협상 타결 시 상여금 1만 2000달러 지급, 퇴직 연금 사측 기여분 증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노동자 평균 연봉은 7만 5000달러(약 1억 원, 기존 단협 적용 기준)에서 11만 9000달러(약 1억 6500만 원)로 오르게 된다.

보잉 노동자들은 기업 경영 위기에 도 생산을 마비시키는 투쟁을 단호하게 벌이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보잉은 올해 내내 월 평균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봤고, 이러한 기업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기를 썼다. 보잉 사측은 임금 인상을 물가 상승률 밑으로 억제하고자 했다.

극심한 생계비 위기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은 더는 참지 않았다. 노조 지도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파업 돌입을 망설였지만 노동자들은 96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양보를 거부하며 파업 노동자 전원을 직장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노동자의 10퍼센트인 1만 7000명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노동자들은 파켓라인(파업 대체인력 투입 금지 행동)을 굳건히 유지했다.

파업이 지속되며 연대도 커졌다. 다른 항공 제조 노동자들과 화물운송 노



7주 동안 단호하게 파업을 지속해 임금 인상을 쟁취한 보잉 노동자들

동자들 등이 파켓라인에 연대했고, 시애틀 지역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도 보잉 노동자 파업을 지지했다.

파업 효과로 보잉 주력 항공기의 신규 생산 대부분이 중단됐고, 파업 효과가 보잉 공급망 전체로 확산됐다.

판돈

이 파업에 걸린 정치적 판돈도 작지 않았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보잉 파업이 더 많은 노동자 투쟁을 자극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파업이 확대되면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몇 달을 악몽에 빠뜨릴 것이다.”(《폴리티코》)

실제로 보잉 파업 와중이던 10월 첫째 주에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들이 물류를 마비시키는 파업으로 기본급 62퍼센트 인상을 쟁취했다.(관련 기사: 본지 521호 '미국 항만 노동자들 파업, 통쾌하게 승리하다')

이번 파업의 정치적 파급 효과는 미국 대선 기간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파업 몇 주 전부터 선거운동을 본격화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는 이 파업으로 “경제 공약의 색조를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폴리티코》)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해리스는 친서민 후보를 자처하면서 생활고에 항의하는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했고, 지지 방

보잉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선에서 누가 당선하든 지속될 위기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보여 줬다.

문 계획이 없다며 거리를 뛴다. 해리스가 진정으로 구매하는 대상은 생활고에 신음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아니라 대자본, 제국주의자들, 군 장성들이기 때문이다.

서민의 대변자를 참칭하던 도널드 트럼프는 “파업 노동자들을 모두 잘라버리라”고 인터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노동자들이 굳건하게 파업을 지속하자 초조해진 사측은 압력을 받아 잇달아 협상을 시도했다. 10월 23일에 사측은 4년에 걸쳐 기본급을 35퍼센트 인상하는 양보안을 내놓았지만, 조합원들은 이안을 64퍼센트 반대로 거부했다.

그로부터 1주일 만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이다.

조합원들은 이 합의안을 11월 4일(월, 현지 시각)에 59퍼센트 찬성 투표로 통과시켰다. 이 찬성률에는 더 싸웠더라면 임금과 상여금뿐 아니라 퇴직 연금에 대한 사측 기여분 원상 복구도 쟁취해 완수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과 자신감이 반영돼 있다.

보잉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은, 대선에서 누가 당선하든 지속될 위기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보여 줬다.

김준호

초대합니다! 노동자연대 2024년 연대의 밤

🕒 2024년 12월 6일(금) 저녁 6시 ~ 11시
📍 서울 을지로 태성골뱅이신사 본점 3층
(서울 중구 을지로3길 35,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후원
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백은진)
048402-04-014849



노동자연대 ws.or.kr | 02-2271-2395 | wsorg@ws.or.kr

